

구인(救仁)의 의미 연구

신동호

(금강대학교 철학박사)

국문 초록

상월원각대조사는 '억조창생 구제중생'을 선언하며 '구인사(救仁寺)'를 창건하였다. 따라서 '구인(救仁)'에는 구제중생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으나 왜 인(人)이 아닌 인(仁)을 사용했는지 그 의미가 명확하지 않다.

그 의미를 파악하기 위하여 상월원각대조사의 행적과 사상에 관한 녹취록을 조사해 봐도 관련 자료의 부족함 등의 이유로 구인의 의미는 명확하게 발견되지 않는다. 따라서 현존 자료를 통해서 인의 의미를 탐구하는 것은 한계가 있으므로 본 연구는 불교 사상 속에서 중생구제의 의미를 한정시킨 후 이를 통해 인의 의미를 추론하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즉, 붓다에 의하면 인간은 즐거운 감정 추구를 통해 행복을 향유하려는 경향이 강한데, 그러한 감정은 변화할 수밖에 없으므로 확고한 행복의 획득에 실패하게 된다.

따라서 감정의 무상성을 깨닫고 욕망의 불꽃이 사라진 상태인 열반을 획득하게 하는 것이 중생구제의 방법이 된다. 이는 구체적으로 욕망의 대상을 가상과 실재로 구별할 수 있는 야타부따 다르샤나(yathābhūtarśana-如實知見)의 획득을 의미할 것이다. 이와 같이 본다면 중생구제를 표방한 구인의 의미는 여실지견을 통한 욕망의 소멸이며 그것은 중생을 확고한 행복으로 이끄는 약속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I. 들어가는 말

상월원각대조사(上月圓覺大祖師, 1911-1974)¹⁾에 의해 1945년 구인사(救仁寺)가 창건된 이후 대한불교 천태종은 1967년 정식 종단으로 문교부에 등록을 마쳤다. 그 후 대한불교 천태종은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대한불교 조계종에 이은 2대 종단²⁾으로 경이로운 성장을 거듭하였다. 대한불교 조계종의 경우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유서 깊은 사찰들로 구성되어 있어 역사적인 사찰과 그곳에서 수행한 스님들에 대해서는 사상적으로는 물론 불교 사학(史學), 예술 등 여러 분야에서 연구가 진행되었다. 이에 비해 대한불교 천태종의 경우 중창된 역사가 짧아 종단과 교리에 대한 연구가 많이 부족한 실정이다. 그러나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국내 2대 종단으로 성장하였다면 오히려 이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해방과 한국 전쟁을 겪으며 피폐해진 이 땅에 상월원각대조사의 어떠한 가르침이 많은 중생들을 구인사로 이끌었는지, 구인사에서 그가 펼쳤던 불교에 대한 해석과 수행도는 어떠한 특징이 있어 구인사를 본산으로 하는 대한불교 천태종이 압축성장을 하였는지를 연구하는 일은 현재 한국 불교를 이해하는 중요한 요소가 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필요성에 따라 본 연구는 먼저 구인사(救仁寺)가 지향하는 불교 정신을 ‘구인(救仁)’의 의미 분석을 통해 고찰한다. 상월원각대조사는 ‘억조창생구제중생(億兆蒼生救濟衆生)’을 천명하며 구인사를 창건하였다. 억조창생이란 ‘수없이 많은 중생’을 뜻하므로 본 선언의 의미는 수많은 중생을 구제한다는 의미가 된다. 따라서 ‘구인(救仁)’의 의미 역시 중생구제로 해석할 수 있으므로 구제를 표현하기 위한 ‘구(救)’의 의미는 어렵

1) 남대충 말씀, 조명기 씀 1987, 1. 상월원각대조사의 상수 제자이며 대한불교천태종 제2대 종정을 역임한 남대충(南大忠, 1925-1993) 대종사에 따르면 ‘상월원각대조사는 신해년(辛亥年) 음(陰) 11월 28일, 본관은 밀양이고, 속명은 박준동(朴準東)이다. 법명은 상월(上月)이며, 원각(圓覺)은 법호이다. 강원도 삼척시 노곡면 상마읍리 봉촌에서 부(父) 박영진과 모(母) 삼척김씨 사이에서 2대독자로 탄생하였다.’고 한다.

2) 신동호 2021, 1: 국내 불교 종단의 규모는 대한불교 조계종이 가장 크다는 것은 의심할 수 없는 사실이다. 이어서 2대와 3대 종단의 규모를 두고서는 각 종단별 주장이 달라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면이 있다. 논자는 대한불교 천태종을 국내 2대 종단으로 주장한다.

지 않게 해석된다. 그런데 ‘중생’에 해당하는 부분이 인(人)이 아니라 인(仁)³⁾으로 표현되었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이 요구된다.

물론 인의 의미에 관하여 상월원각대조사의 명확한 어의(語義)해석과 설법이 있었다면 본 연구의 필요성은 현저히 감소되겠지만, 논자의 관견(管見)으로 인해 아직 그러한 자료를 발견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이 특별히 이상한 일은 아니다. 불교의 개조(開祖)인 고타마 붓다 역시 깨달음을 얻고 평생 인도 대륙을 유행(遊行)하며 가르침을 펼쳤지만 그의 가르침이 처음부터 ‘어의 분석’을 통한 정의가 내려지거나 철학적·학문적 형식으로 정립되었던 것은 아니었다. 붓다는 유행 중에 근기가 다른 다양한 중생들을 만나면 그들에게 고통으로부터 벗어나는 길을 가르치는 것을 가장 중요한 목적으로 삼았다. 따라서 그가 깨달은 심오한 내용은 알기 쉬운 비유와 예시를 통해 전달되었다. 그의 이러한 가르침을 아비달마(阿毘達磨)적으로 정리하여 철학적으로 발전시킨 것은 그가 열반에 든 후 교리에 대한 해석 차이로 여러 부파가 갈라지면서 본격화 되었다.

이러한 의미에서 본다면 상월원각대조사가 ‘구인’의 의미는 물론 그가 깨달은 심오한 의미를 학술적으로 설명하지 않았음은 낯선 장면은 아니다. 그에게 있어 불교란 식민 지배와 한국 전쟁으로 피폐해진 이 땅의 병들고 굶주린 중생들을 현실적 어려움에서 벗어나게 하는 가르침이었을 것이다. 따라서 그의 사상을 학술적으로 연구하는 것은 그가 열반에 든 지금 시점에서 자연발생적으로 요구되는 과정이라 생각된다.

이에 본 연구는 현재 남아있는 상월원각대조사의 자료를 통해 구인의 의미를 조사하고 분석하여 구인사의 지향성을 고찰한다.

II. 상월원각대조사 행적 및 사상 관련 자료 현황

구인의 의미를 분석하기 위해 먼저 상월원각대조사 관련 자료의 생성 과정에 대한 검토를 진행한다. 상술하였듯이 상월원각대조사의 사상은 그의 재세시에 학문적 형식으로 정리되어 전승되지 않았다. 하지만 당시 그의 문하에서 직접 가르침을 듣고 배우

3) 『妙法蓮華經』(T. 262, 3c9-10): 文殊當知 四衆龍神 瞻察仁者爲說何等. 문수보살이시여 아셔야 합니다. 사부대중과 용신이 인자를 우러러 보고 있사오니, 그 어떤 일을 말씀하려고 하심 입니까. 경전에서 인이 사용된 용어로는 ‘인자(仁者)’가 있다. 그런데 여기서 인자는 상대를 일컫는 말로 문수보살을 의미하므로 구인의 인과는 거리가 있어 보인다.

고 수행하였던 제자들에게 그의 사상은 공통의 기억으로 남아 현재 구인사 수행체계를 이루고 있음은 당연한 일이라 하겠다. 이와 같은 유무형의 가르침을 기반으로 제2대 종정이었던 남대충 대종사는 스승인 상월원각대조사가 1974년에 열반에 든 후 그의 행적을 텍스트 형태로 보존하려는 노력을 기울였다.

동국대학교 제5대 총장을 역임한 조명기 박사(1905-1988)⁴⁾는 상월원각대조사를 직접 알현하며 그의 수행과 가르침을 보고 들은 적이 있다. 그의 기술에 의하면 1982년에 대한불교 천태종 제2대 종정인 남대충 대종사의 구술로 상월원각대조사의 『오도송(悟道頌)』을 기록하게 되었다고 한다. 그 과정에 대해 조명기 박사는 다음과 같은 기억을 들려준다.

… 불경을 요새같이 글자를 써서 인쇄를 해서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옛날은 대개 부처님이 말하는 것을 다 외웁니다. … 중략 … 그리고 우리 대충 스님도 조사 스님 설교를 설교한 것을 말씀을 하는 거예요. 말씀을 쪽 이래하고 이런 설교를 하더라. 하면서 그 설교 자기가 기억하고 있는 것을 외워요. 이거 언제 외웠냐 할 것 같으면 한번은 내가 1982년 3월 달에 구인사에 갔어요. 내하고 덕산⁵⁾이 하고, 홍임의 부인(여문성 스님)하고 시방 대충 스님이 오라고 해요. 자기 방에 앉으니 거기 또 여럿이 있습니다. 그래 우리 조사 스님 설교하는 것을 내가 외울 것이니 종이하고 붓하고 가져와서 받아쓰라고 그러니까. 그래 덕산하고 내하고 둘이서 받아쓰려고 하니깐 입에서 글귀가 줄줄 나와요. 그래서 받아썼습니다.

… 중략 … 받아 써놓고 나니 우리도 알아보니까 딱 어렵기 때문에 글자를 좀 고쳤습니다. 고치고 해서 문맥은 달도록 되어 있습니다. 받아써서 우리가 그때 감격을 했는데 “왜 이걸 진작 발표를 안 하고 이것을 진작 대중을 모아놓고 설교를 해야지 감추고 있었냐?” 이래 물으니 “다 그 이유가 있다.” 그래요. “조사스님이 설교를 하고 이래 하다가 해놓고 이것을 발표를 하지 마라.” 그랬다 그러니까. “이것을 발표하면 우리가 모여서 살지 못한다. 발표를 하지 말고 꼭 감춰둬라.” 그래서 아직까지 자기가 두뇌 속에서만 외워놓고 입을 연 일이 없다가 시방 발표 할 때가 됐으니 내가 발표를 하니깐 그리 알라고 하면서 얘기를 합니다.

4) 조명기 박사(1964-1968년 동국대학교 제5대 총장 역임)는 제2대 종정인 남대충 대종사의 상월원각대조사에 관한 여러 기억을 정리 및 편집하여 기록으로 남겼다. 대표적으로 상월원각대조사의 생애와 구도, 그리고 깨달음을 정리한 『上月圓覺大祖師悟道記略』이 있다.

5) 윤덕산(1939-2012)은 조계종에 출가한 후 1972년 상월원각대조사의 제자가 됨. 천태종 포교원장, 종의회의장, 원로원장 등 역임.

그때 구인사서 내는 신문이 하나 있는데 신문에 상월조사 사상이라면서 글이 났어요. 짤막한 글인데 그 글을 보고, 구인사 신문을 보고 “얼키 우리 조사스님이 이것 발표하지 마라 하는 것을 어째서 누가 발표 했냐?”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발표할 바에는 내가 해야 되겠다.”고 이거 잘못하면 안 되는데. 그래서 그것이 잘못됐다면서 자기가 발표한 겁니다.”⁶⁾

이상 『오도송』 작성 과정에 관한 조명기 박사의 기술은 다음 세 가지 특징으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초기 불교 시대 붓다의 말씀 역시 제자들에게 의해 기억으로 구전되다가 수 세기가 흘러 후대에 문자로 기록되어 경전으로 정착되었다. 그와 같이 오도송의 경우도 남대충 대종사의 기억에 의해 전승되다가 문자기록의 과정을 거쳤다.

둘째, 상월원각대조사는 재세시에 자신의 가르침을 아직은 대외에 천명하지 말라고 했고 그 이유는 당시 그것을 천명하면 ‘우리가 모여 살지 못한다’라고 경계를 하였기 때문이다.

셋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대충 대종사가 『오도송』을 구술하는 이유는 누군가 상월원각대조사의 가르침을 신문에 잘못된 내용으로 게재함을 보고 이를 바로 잡기 위해 오도송을 기록하게 되었다.

여기에서 첫째와 셋째는 초기 불교 시대 경전편찬 과정과 매우 유사하다. 첫째는 상술한 바와 같이 구전 후 문자화되었다는 점에서 유사성을 찾을 수 있다. 그리고 셋째는 붓다 열반 직후 수밧다라는 비구가 스승의 열반으로 그의 간섭에서 벗어나 해방되었다고 떠드는 것을 보고 마하갓사빠(Mahā-Kassapa, 大迦葉) 존자가 정법(正法)이 소멸될 것을 우려해 제1차 결집을 주도한 것과 유사한 상황으로 보인다.

6) 조명기 1987, 9-10. 본 자료는 대한불교 천태종이 ‘중단 관련 Video, Audio, 언론기사 등에서 수집 발췌한 것이며 받아쓰기 및 옮겨 적기한 1차 본에 해당함’이라고 구인사에 보관된 제본의 가장 앞표지에 기록하고 있다. 따라서 청취가 어려운 부분은 오타자가 있음을 부기하고 있으므로 본 논문에서는 맞춤법 등이 맞지 않아도 자료에 있는 단어와 문장을 그대로 옮겼다. 또한 본 자료에는 강연자의 연도는 기록되어 있으나 이들을 모아 제본 상태로 만든 연도가 나와 있지 않아 연도는 강연 연도를 기준으로 표기한다. 그리고 저자 위치에 ‘조명기’라고 썼으나 이는 구술자, 강연자를 뜻하고 본 자료를 작성한 자를 뜻하지는 않는다. 본 논문은 이러한 규칙에 따라 인용 텍스트를 표기한다.

이러한 유사성은 자연발생적인 양상으로 보인다. 교조(敎祖)가 생존할 당시에는 학술적·이론적 형식이 아닌 다른 여러 방법으로 자신의 사상을 전할 수 있었겠지만 후대가 될수록 그러한 가르침은 하나의 정보가 되어 문헌 속에 저장되어야 보다 폭넓게 전승되기 때문일 것이다. 따라서 붓다도, 그리고 상월원각대조사도 그들의 가르침은 후대 제자들에게 의해 정리되어 기록됨은 자연발생적으로 요구되는 현상으로 보인다.

그런데 두 번째의 이유, 즉 상월원각대조사가 직접 가르침의 공표를 자제시킨 점은 구인사 창건 당시의 어려운 시대 상황의 반영으로 보인다. 1945년 구인사 창건 이후 상월원각대조사는 해안을 통해 병자를 낫게 하거나 중생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었다. 물론 그의 깨달음의 목적과 내용이 오직 치병(治病)이나 소원 성취에만 있지 않음은 주지의 사실이지만 당시의 어려운 시대 상황에서 일반 민중에게 그보다 더 직접적인 종교적 효험은 없었을 것이다. 상월원각대조사의 명성이 더욱 높아지면서⁷⁾ 소백산 골짜기 초가삼간 구인사는 낱알이 많은 사람들이 찾게 되었다. 그러자 인근 관공서에서 이를 이상하게 여겨 조사가 나오는 등 뜻하지 않는 의심을 받기도 하였다.

우리가 ... 중략 ... 큰 천태종으로 등록이 나가지고 아무 뭇도 없지만은 그때는 막사리 집에 있고 하니깐 뭐 하는 사람들이 저렇게 모여가지고 사는가 하고 거기에 대해서 얼마나 모두 조사가 오고 그랬는데. 그래서 우리를 교육을 다 시키셨어. 오면 어디가 아파서 왔다는 것을 어떻게 대답을 하라 하시고 뭐 이런 것도 다 우리가 교육을 받았어.⁸⁾

구인사 초창기 많은 의심을 받아 현실적 대응을 고민해야 했음을 보여주는 증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상월원각대조사의 심오한 사상이나 새로운 불교 수행을 구현중인 구인사를 적극적으로 대외적으로 알린다는 것은 오해를 불러일으킬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었을 것이다. 그것은 '우리가 모여 살지 못한다.'고 표현할 정도로 매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문제였던 것으로 보인다.⁹⁾ 그래서 상월원각대조사는 당시 적절한 시기가 아니라고 판단하고 제자들에게 그의 가르침을 공표하지 말게 하였다.¹⁰⁾

7) 조갈천 2006, 4: 그때는 왜 부처님, 부처 소리를 했느냐 하면 그때 구인사 절이 ... 중략 ... 지금 그 후로 얼마 안 있다가 구인사라는, 절이라는 게 임시로 땀지, 그때는 구인사 인(人) 부처, 병 고치러 간다. 전부 이런 평이 났었어. 또 그렇게 났고. 왜 그런 평이 났느냐면 환자는 들어가면 무조건 나아서 왔으니까.

8) 서월궁 2006, 6 참조.

9) 대한불교 천태종 1999, 187-188. 손봉수 일가에 의하면 당시 백자리 마을 주민이나, 영춘, 제천 사람들의 구인사와 신도들에 대한 폄박이 심했다고 재가 신도의 녹취는 보여주고 있다.

10) 전운덕 2010, 8. 전운덕 전 총무원장에 의하면 상월원각대조사는 자신의 설법 등을 녹음하지 못하게 하였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 이를 어기고 정확하지 못한 내용으로 상월원각대조사의 사상을 신문에 게재하자 그의 상수제자이며 대한불교 천태종 제2대 종정을 역임한 남대충 대종사는 심각한 문제의식을 느꼈다. 이에 남대충 대종사는 직접 스승을 모시고 배웠던 제자로서 스승의 가르침을 더 늦기 전에 기록해야 할 필요성을 느꼈던 것으로 보인다. 이는 정법이 훼손됨을 본 후 이를 심각하게 받아들여 경전편찬을 시작한 붓다의 직계 제자들과 동일한 상황인식으로 볼 수 있다. 남대충 대종사는 기록 작업을 위해 상월원각대조사를 알현한 적이 있는 저명한 불교학자인 조명기 박사, 그리고 상월원각대조사의 제자이며 『법화경(法華經)』 번역 등을 통해 대한불교 천태종의 교리와 체계를 뒷받침한 윤덕산 스님 등을 통해 자신이 기억하는 스승의 가르침을 ‘문자화’하였다. 이는 제1차 결집 당시 특정 제자들의 기억만을 붓다의 말씀으로 채택할 때 발생하는 오류를 방지하기 위하여 500명의 아라한들이 다 함께 모여 붓다의 말씀을 공증한 것과 같은 모습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조명기 박사는 남대충 대종사의 지시에 따라 『오도송』 작성은 물론 남대충 대종사를 모신 가운데 구인사에서 법문과 특강을 통해 상월원각대조사의 행적과 가르침을 전하였다.

Ⅲ. 인(仁)의 의미 검토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상월원각대조사의 행적과 사상에 관한 자료는 후대 남대충 대종사를 중심으로 부분적으로 복원되어 기록되었고 상월원각대조사 재세 당시에는 기록과 녹취가 금지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조명기 박사의 강의 녹취에서도 논자의 부족함 탓으로 인하여 ‘구인’의 의미를 찾지는 못하였다. 단지 상월원각대조사 탄신 84주년에 전운덕 전 총무원장¹¹⁾의 특별법문에는 짧게나마 그 의미가 나타나 있다.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사찰을 짓고 절 이름을 구인사라고 했습니다. 구원할 구, 어질 인

다고 한다. 그 이유는 나중에 시간이 흘러가면 저절로 알게 되기 때문에 신도들에게 법회 때 녹음을 하지 못하게 하였다고 한다.

11) 전운덕은 1966년 구인사에 입산하였다. 1966년 8월 대한불교천태종 총무국장을 시작으로 72년 총무부장을 거쳐 1980년부터 2004년까지 대한불교천태종 제7~13대 총무원장, 그리고 원로원장 역임.

자, 절 사자. 그래서 구원할 구자, 어질 인자, 절 사자 하니까 뤄한 사람들이 말이요, 어질 인자가 들어가서 유교에서 인의예지신이다. 이래서 불교가 맞느니 안 맞느니 이렇게 평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조사 스님 말씀은 구인사란 뜻이 뤄냐 하면은요? 구인사를 조사 스님이 이렇게 끼워 맞춰서 지은 이름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앞으로 그렇게 되어져 있는 이치를 그대로 이름 지은 것입니다. 말하자면 구인사란 뜻이 뤄냐면? “억조창생 구제중생 구인사다.”이거요.¹²⁾

즉, 전운덕 전 총무원장의 설명에 의하면 구인사는 억조창생 구제중생의 의미인 데어질 인자를 사용함으로 인해 유교 사상이 아니냐는 세간의 비평도 있음을 밝히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한 답변은 단지 ‘향후 그렇게 될 이치를 설명하였다’고만 해설하고 있어 명확하게 어질 인의 의미를 알기는 쉽지 않다. 전운덕 전 총무원장의 또 다른 법문에서도 이와 비슷한 내용이 확인된다.

구인사란 이름을 조사 스님이 지을 때 뤄라고 지었냐면? 구인사는 ‘억조창생 구제중생 구인사다 이거여. 그래 조사 스님이 골짜기는 좁지만은 조사 스님이 지은 이름은 이렇게 우리가 일반 상식적인 글자를 빌려 지은 것이 아니고 깨달은 법으로 해서 미래를 내다보고 지으신 거예요. 그래서 “구인사는 골짜기 좁고 비좁고 하지만은 여기서 말하자면 억조창생을 구제하는 이 도량이 바로 구인사다.”하신 거예요.

이상의 기록에서도 ‘인’의 의미는 추적하기 어렵고 다만 ‘일반 상식적인 글자를 빌려 지은 것이 아니라고 하므로 인의 표면적 의미인 ‘어질다’에만 국한해서 인을 파악할 필요는 없어 보인다. 다만 중생구제는 구인사가 추구하는 확고한 목표임은 다른 자료에서도 어렵지 않게 확인된다.

또 우리가 만국제도를 다 하시고, 중생구제를 하다 보면 우리가 정말 고생을 하면서 뤄아야 그게 바로 뤄는 길이고 … 중략 … 우리 구인사는 중생 구제를 하러 부처님이 이 세상을 창건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뤄어야 된다고 하셨어. 2대 큰스님도 그 말씀 가끔 하셨어.¹³⁾

12) 전운덕 1994, 참조.

13) 서월궁 2006, 26-27 참조.

이상의 고찰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즉 ‘구인’이 중생구제라는 점은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지만 그 중 인(仁)의 의미는 현존 자료 중에서 제시되어 있지 않다. 물론 인이 ‘어질다’라는 사전적 의미를 표현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다면 어의 해석에서 인의 의미를 찾는 방법론에 다소간의 수정이 필요한 것이 아닐까? 즉, 기존 자료를 통해 조사하기 어려운 인의 의미를 찾기보다, 오히려 ‘어질다’라는 표면적 의미에서 벗어나 반대로 추론해보는 것은 어떨까? 구체적으로, 구인이 중생구제를 뜻한다면 불교가 제시한 중생구제의 구체적 항목들을 통해 인의 의미를 포착해야 할 것이다. 그중에서 구인사에서 두드러지게 강조되고 실천되는 중생구제의 방법론을 찾아 이를 인의 의미로 포착하는 것이 상월원각대조사의 사상을 더욱 선명하게 하는 일이 아닐까 한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고타마 붓다가 어떠한 목표 달성을 통해 중생구제를 제시하였는지 살펴보고 그것이 인의 의미와 연결될 수 있는지 고찰한다.

IV. 중생구제의 의미-확고한 행복의 획득¹⁴⁾

고타마 붓다는 깨달음을 획득 후 한평생 자비심에 기반을 두고 중생구제를 위해 살아간다. 붓다 재세 시에 그의 가르침은 이론적 고찰이 아니라 다양한 근기의 모든 중생이 알아듣고 실천할 수 있는 방법론을 통해 구체화 되었다. 따라서 그는 우주의 크기와 존속, 사후(死後) 존재의 문제를 현학적으로 제시하지 않는다. 오히려 이러한 형이상학적 문제를 묻는 이들에게 답을 주지 않고 어떻게 하면 생노병사라는 고통에 놓여있는 중생을 그로부터 벗어나게 할까에 초점을 두고 가르침을 펼쳤다. 따라서 그는 왜 중생들이 고통에 놓여있는지 그 원인부터 분석하기 시작하였다.

고타마 붓다는 중생이 불행 혹은 행복이라는 소위 고택(苦樂)의 결과를 향유하는 원인을 마음¹⁵⁾ 작용에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그의 가르침은 상대적 행복이 아닌, 확고한

14) 신동호·전광수·정상교 2021, 9-14. 3인의 저자가 공동으로 집필하여 발표한 『AI시대의 인성(仁性) 교육-한국 인성 교육의 현황과 상월인 교육원의 교육 철학 소개』에서 중, 필자가 연구한 부분을 발췌하여 수정하였다.

15) 미산 스님 2014, 39. 일반적으로 ‘마음’이라는 단어는 초기불교에서 찻따(citta, 心)는 마음 자체를 의미하고, 마노(mano, 意)는 인식작용이 나타나는 기능(根, indriya)이나 감각 장소(處, āyatana)의 뜻으로 쓰인다. 또한 인식기관과 인식대상이 만날 때 생기는 것을 윈나나(viññāṇā, 識)로 옮겨졌지만 이 용어들은 초기경전에서 혼용되고 있다.
또한 대승불교의 유가행유식학과(瑜伽行唯識學派)는 마음 활동을 소위 표층과 심층의식의 두 층위로 나누어 설명한다.

행복의 획득을 위해 구성되었다. 즉, 감각적 욕망에 대한 집착(upādāna)이 새겨진 마음이 불행의 결과를 낳는 행위의 원인이므로 이를 제거하기 위한 가르침을 이론(불교 교리)과 실천(마음 움직임 관찰) 즉 교관(教觀) 모두에서 전개하였다. 그가 깨달음을 획득한 후 평생에 걸쳐 전개한 가르침의 핵심은 바로 이것이었다.

그렇다면 인간은 어떤 상태에 있을까? 자신이 행복하다고 느끼는 것일까? 붓다는, 인간은 즐거운 감정을 행복으로, 불쾌한 감정을 고통과 동일시하므로 많은 즐거움 추구를 통해 고통을 피하려 한다고 통찰하였다. 문제는, 우리의 감정은 매 순간 변하므로 행복을 위해 끝없이 즐거운 감정을 추구해야 하는데¹⁶⁾ 행복의 획득은 이러한 방법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붓다는 번뇌의 근원은 고통과 슬픔이 아니라 이러한 순간적 감정을 무의미하게 추구하는 데 있다고 보았다. 결국 우리는 늘 '불만족' 상태인 고(苦)¹⁷⁾에 놓여 있게 된다. 그럼 왜 사람들은 감정이 주는 느낌을 행복이라고 오인하는 것일까? 붓다는 보통의 사람들은 감각이 주는 행복에서 벗어나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감각적 욕망의 충족을 통해 행복을 획득하려 한다고 보았다.

그가 괴로운 느낌에 닿으면 이제 그는 감각적 욕망의 즐거움을 누리려는 쪽으로 나아가게 된다. 그것은 무슨 이유 때문인가? 비구들이여, 배우지 못한 범부(凡夫)는 감각적 욕망의 즐거움을 누리는 것 말고 그 괴로운 느낌에서부터 벗어나는 다른 출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¹⁸⁾

그래서 붓다는 괴로운 느낌에서 벗어나는 다른 출구를 알려주었고 이를 통해 획득

16) 대립 스님 옮김 2012, 61; 이필원 2016, 43. 붓다는 악기왯사나와의 대화에서 즐거운 느낌을 추구할 때 당면하는 문제점을 다음과 같이 보여주고 있다.

“악기왯사나여, 진리를 배우지 못한 이들에게 즐거운 느낌이 일어난다. 그가 그 즐거운 느낌을 경험하면 그 느낌을 갈망하고 지속되길 갈망한다. 그런 그에게 이제 그 즐거운 느낌은 소멸한다. 즐거운 느낌이 소멸하고 다시 괴로운 느낌이 일어난다. 그가 그 괴로운 느낌을 경험하면 근심하고 상심하고 슬피하고 가슴을 치고 울부짖고 광란한다. 악기왯사나여, 그에게 일어난 그 즐거운 느낌은 마음을 제압하면서 머무나니 그것은 몸을 닦지 않았기 때문이고, 그에게 일어난 그 괴로운 느낌은 몸을 제압하면서 머무나니 그것은 마음을 닦지 않았기 때문이다.”

17) 폴 윌리엄스 · 앤서니 트라이브 지음, 안성두 옮김 2011, 59-60. 불교에서는 비록 즐거움을 느끼는 상태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감정은 일시적이고 불만족을 초래하므로 이를 산스크리트어(Sanskrit)로 두카(duḥkha)라고 하였다. 한자 문화권에서는 이 단어를 '고(苦)'로 번역하여서 이 의미는 상당히 엄세적으로 들릴 수 있는데 고는 육체적 고통도 포함하지만 불만족 · 불안정 상태를 의미한다. 따라서 두카(duḥkha, 苦)는 영어의 'suffering' 보다는 광의의 의미를 가진다.

18) 일목 2020, 36. 『화살 경』(상숫따 니까야 36 : 6)에서 재인용.

한 ‘확고한 행복’을 욕망의 불꽃이 꺼졌다는 의미에서 니르바나(Nirvāṇa, 涅槃)라고 하였다.¹⁹⁾ 물론 이러한 단계 역시 쉽게 습득되지 않기 때문에 보다 근원적인 고찰이 필요하다. 곧, 감각적 욕망의 본질이 무상함을 체득할 때 이를 행복과 동일시하는 오류를 범하지 않게 된다. 그러면 불교는 어떻게 감각적 욕망의 무상성을 파악하라고 선언했는가.

『반야심경(般若心經)』은 존재란 눈·코·귀·입·피부·생각이 색·소리·향기·맛·감촉·추상적 개념을 대상으로 도출해 낸 일시적 존재일 뿐이기에 모든 존재를 공(空, śūnya)으로 보았다. 또한 『금강경(金剛經)』은 이러한 고찰을 바탕으로 ‘만들어진(형성된) 모든 것들은 꿈과 같고 환영과 같고 물거품 같고 그림자와 같다고 선언하였다. 물론 이러한 경전들의 주석서인 『중론(中論)』은 경전의 선언이 허무주의와 혼동될 것을 우려해 우리가 밭 딛고 사는 이 세상의 언어와 질서를 버리고서는 깨달음에 들어갈 수 없음을 제시한다. 즉, 사물을 극단의 시각을 통해 바라볼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통찰하여야 한다.

여기서 우리는 불교가 추구한 바른(眞)의 본질을 추출할 수 있다. 그것은 바로 대상을 ‘꿈과 같고 환영과 같고 물거품 같고 그림자와 같음’을 ‘있는 그대로’ 아는 것을 뜻한다. ‘있는 그대로’는 여실(如實)이라고 하는데 이는 산스크리트어 ‘야타부따(yathābhūta)’의 번역어이다. 야타(yathā)는 ~와 같은(as, like)의 의미이고 부따(bhūta)는 존재하는 것의 의미다. 따라서 야타부따는 ‘존재하는 것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를 의미하고 불교의 깨달음은 바로 이 야타부따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한다. 바꿔 말하면 우리가 확고한 행복을 획득한다는 것은 바로 야타부따를 통찰하는 지혜, 즉 ‘야타부따 다르샤나(yathābhūta darśana-如實知見)’의 획득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구인은 확고한 행복의 획득, 즉 여실지견의 획득에 다름 아니며, 그것은 곧 중생구제의 구체적인 목표점이 될 것이다.

19) 服部弘瑞 1987, 523: 한문 문화권에서는 음역하여 열반(涅槃, 니원(泥洹)이라고 하고, 의미를 따라 멸도(滅度)·적멸(寂滅)·원적(圓寂) 등으로 번역한다. 산스크리트(Sanskrit)어와 친족 관계이며 불교 경전을 기록하고 있는 팔리(Pāli)어로는 Nibbāna(니바나)라고 하고 그 어의(語義)에 관해서는 다음과 같은 해석이 존재한다.

- 1) nir + √vā(바람을 불다) : 불꽃이 꺼진 상태
- 2) nir + √vr(덜다) : 덮혀진 것을 제거한 상태
- 3) nir + vana (숲) : 욕망의 숲에서 나온 상태

V. 결론

이상의 고찰을 바탕으로 구인의 의미는 다음과 같이 도출된다. 상월원각대조사는 억조창생 구제중생의 정신으로 구인사(敎仁寺)를 창건하였다. 따라서 '구인(敎仁)'은 중생구제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으므로 '인(仁)'보다는 '인(人)'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이에 대한 확인을 위해 상월원각대조사의 사상과 행적에 관한 관련 문헌을 검토하였다. 그러나 상월원각대조사는 재세시에 당시 시대상황이 자신의 사상과 구인사의 수행종풍을 이해하지 못할 것이라 내다보고 녹취 및 기록 등을 자제했음을 발견하였다. 따라서 그의 사상과 행적에 관한 자료는 그가 열반에 든 후 제2대 종정에 오른 남대충 대종사의 법문과 지시 속에서 확인된다. 특히 상월원각대조사를 직접 알현하였고, 남대충 대종사의 구술을 받아 적어서 『오도송』을 기술한 조명기 박사는 상월원각대조사의 사상을 특강과 법문으로 남겨놓았지만 여기에도 구인의 의미는 발견되지 않는다.

그런데 전운덕 전 총무원장의 녹취 자료는 상월원각대조사가 '억조창생 구제중생 구인사를 선언하였음을 재차 확인해 주고 있고 서공월 스님의 녹취 자료에도 구제중생이 구인사 창건의 가장 큰 의의임이 확인된다. 그러나 왜 인(仁)을 썼는지는 명확하게 나타나 있지 않으나, 인이 '어질다'의 의미로만 한정될 필요는 없다는 추론 역시 가능하게 해 준다. 따라서 현존 자료를 통해서 인의 의미를 탐구하는 것은 한계가 있으므로 논자는 불교 사상 속에서 중생구제의 의미를 한정시킨 후 이를 통해 인의 의미를 추론하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즉, 붓다는 인간은 즐거운 감정 추구를 통해 행복을 향유하려는 경향이 강한데, 그러한 감정은 변화할 수밖에 없으므로 확고한 행복 획득에 실패하게 된다. 따라서 중생들에게 감정의 무상성을 깨닫고 욕망의 불꽃이 사라진 상태인 열반을 획득하게 하는 것이 중생구제의 방법이 된다. 이는 구체적으로 욕망의 대상을 가상과 실재로 구별할 수 있는 야타부따 다르사나(yathābhūtarāsaṇa-如實知見)의 획득을 의미할 것이다. 이와 같이 본다면 중생구제를 표방한 구인의 의미는 여실지견을 통한 욕망의 소멸과 이로 인한 확고한 행복의 획득이라고 추론할 수 있다. 따라서 인은 확고한 행복을 의미한다. 환언하면, 구인사가 추구하는 중생구제는 모든 중생의 확고한 행복 획득에 그 지향점이 있다고 하겠다.

- 남대충 말씀. 조명기 씀. 1987. 『上月圓覺大祖師悟道記略』. 대한불교천태종총무원.
- 대한불교 천태종 1999. 「상월원각대조사 관련 인터뷰 목록(WI-1999A)」, 『녹취록』, 대한불교 천태종, 187-188.
- 미산 스님. 2014. 「변화무쌍한 마음을 어떻게 바로잡아야하는가」, 『마음, 어떻게 움직이는가』. 운주사.
- 신동호. 2021. 『上月圓覺大祖師 녹취록 연구』. 금강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신동호·전광수·정상교. 2021. 『AI시대의 인성(仁性) 교육-한국 인성 교육의 현황과 상월인 교육원의 교육 철학 소개』. 금강대학교, 9-14.
- 서월궁. 2006. 「상월원각대조사 탄신 100주년 관련 대담(SW_INT_006_서월궁 스님 2)」, 『녹취록』. 대한불교 천태종.
- 이필원. 2016. 「초기불교의 인성교육적 특성고찰」, 『불교학보』76: 35-58.
- 일묵 스님. 2020. 『사성제』. 불광출판사.
- 전운덕. 1994. 「종단관련 주요 텍스트 제1권, 상월원각대조사 탄신 특별법문_생애 (전운덕 스님/1994)」, *ETM(Essential Text Materials)_0023_CA No. 545*. 대한불교 천태종.
- _____. 2010. 「상월원각대조사 탄신 100주년 관련 대담(SW_INT_003_전운덕 스님 2)」, 『녹취록』. 대한불교 천태종.
- 조갈천. 2006. 「상월원각대조사 탄신 100주년 관련 인터뷰 (SW_INT_075_조갈천 스님 1)」, 『녹취록』. 대한불교천태종.
- 폴 윌리엄스·앤서니 트라이브 지음. 안성두 옮김. 2011. 『인도불교사상』. 씨아이알.
- 服部弘瑞. 1987. 「原始仏教に於ける涅槃の語義に就いて」, 『印度學仏教学研究』35-2: 522-524.

A Study on the Meaning of Guin (救仁)

Dongho SHIN

(Doctor of Philosophy, Geumgang University)

Supreme Patriarch Sangwol Wongak founded Guinsa Temple (救仁寺) by declaring that he would save of all people. Guin (救仁) therefore implies the meaning of the salvation of all people, but it is not clear why it used 仁[rén, benevolence], not (人)[rén, people]. In order to understand its meaning, a transcript of Supreme Patriarch Sangwol Wongak's activities and thoughts is examined, but the meaning of the Guin (救仁) is not clearly found due to the lack of relevant texts. Therefore, there is a limit to exploring the meaning of the 仁 through existing texts, so this study suggests a way to specify the meaning of the salvation of all people in Buddhist thought and then infer the meaning of the 仁 through it.

In other words, according to Buddha, people tend to enjoy happiness through the pursuit of pleasant emotions, which inevitably change and thus fail to acquire constant happiness. Therefore, it is a way of the salvation of all people to realize that emotions are not eternal and to acquire Nirvāṇa, where the flame of desire has disappeared. This will specifically mean the acquisition of *yathābhūtarśana* (如實知見), which can distinguish between virtual and real objects of desire.

In this way, the meaning of the salvation of all people is the extinction of desire through *yathābhūtarśana*, and it is a promise that leads the people to solid happiness.

keyword : Supreme Patriarch Sangwol Wongak, Guinsa Temple, The

salvation of all people, *Yathābhūtarśana*, Happiness, Desire. Benevolence

2021년	9월 2일	투고
2021년	9월 14일	심사완료
2021년	9월 14일	게재확정